

# 프랑스 어린이도서관의 대모, 즈느비에브 빠트 여사가 전하는 '어린이도서관 사서의 역할'

| 허순영\*



올해 파주 어린이 책 축제의 중심 행사로 열린 어린이 책과 도서관에 관한 심포지엄은 프랑스 어린이도서관의 대모라 불리는 즈느비에브 빠트와 엘리자베스 로르틱 여사가 초청되어 많은 도서관인과 어린이 책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프랑스의 어린이도서관 사서는 대학에서 전공을 할 수도 있지만 복수전공 또는 다 전공의 하나로 어린이사서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즈느비에브 빠트 여사는 얼마 전 르몽드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도서관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자료에서조차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어린이들이 책에서 날로 멀어지는 상황에서 어린이도서관에서만큼은 '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의 사서는 어린이가 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지 늘 지켜보는 관찰자 입장이어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어떻게 오는가, 어린이들은 어떤 책을 선택하는가,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존중이 되는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빠트 여사가 전하는 어린이도서관 현장 운영경험은 요즘 한참 리모델링 되거나 지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어린이도서관의 전망을 짚어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해 정리해 보았다.

## 어린이도서관이란?

<책을 통한 기쁨> 어린이도서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프랑스 내 어린이책출판사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전 세계의 사서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책을 많이 구할 수가 있었는데 많은 책들 중에서 특히 그림책의 삽화들이 매혹적이었다. 그림책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 또 그 이야기들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반응 하는가?가 출판사들의 관심이었고 그건 그림책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초기에 아동도서 리뷰 책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사서교육용이었다. 대부분의 사서들은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도서관을 안내하는 카달로그나 도서목록, 행정 일에 매달려 있어 위험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책을 통한 기쁨> 어린이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선택한 책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질도 좋다. 바로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전해줄 책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도서관이란 한 마디로 정의하면 '어린이와 사서가 관계를 이루는 곳', '책을 핑계로 어른과 아이들의 감동을 이루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서는 늘 아이들이 책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프로그램 코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입, 즉 책을 좋아하는 방식을 관찰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

\* 순천 기적의도서관 관장, hsy@sc.go.kr

력을 들여야 한다. 특히 그림책은 예술적인 것이어서 작은 그림책이라도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험이고 어른들은 관찰자 입장에서 증인이 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는다. 이는 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책을 건네주었지만 여전히 도서관에 오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었다. 빠트 여사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큰 바구니에 50여권의 아주 좋은 책들로 골라 도서관을 나섰다.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그 어린이들은 나쁜 평판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선뜻 다가서지 않았다. 책으로 뭔가를 홀리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책과의 이경이로운 만남을 통해 곧 사라졌다. 조금씩 다가와서 책을 보고 빌려가게 된 것이다. 수요일이면 반복되는 이 '바구니 도서관'을 통해 어린이들이 조금씩 반응을 나타내자 도서관으로 오라고 권한다. 도서관에 오면 이보다 더 좋은 책이 아주 많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큰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자 했던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하면서 바로 호기심을 보여 왔으며 도서관 사서들은 이 아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가 계속 숙제가 되었다. '바구니 도서관' 사람들은 점점 나쁜 평판이 있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고 비가 오는 날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게 되었다.

이 동네를 연구했던 심리학자들이 '야외 독서 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어린이들이 무엇을 읽었고 어떤 책을 읽고 싶어 하는지가 그들의 주 관심분야였다. 가장 아름다운 책이 아이들

을 바꿀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때 문이었다.

### 어린이도서관 사서의 역할

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또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어린이도서관의 주 역할이어야 한다. 요즘 많은 부모가 도서관에 함께 와서 책을 고르는 것에 안심을 하고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지만 도서관 측에서는 다만 책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감시할 따름이라 안타깝다.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물질적인 재료나 자료로 도서관을 채우면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관계는 더 부족해졌다. 도서관이 발달한 곳도 공공, 제도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고민해야 한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아이들과의 친밀감, 책의 세계에 빠진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어른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서들끼리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책을 통한 기쁨>도서관 사서들은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모임 부분의 핵심은 '좋아하는 어린이 책'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행정적인 업무의 부담은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이 중심이냐, 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일을 해결한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데 행정적인 일이 밀려 읽어줄 수 없을 때에는 부모들을 초대, 책을 읽어주도록 하였고 때로는 여행하는 젊은이들에게 그 읽어주는 일을 부탁할 때도 있었다.

행정적인 업무의 과중과 인력의 부족은 전 세계 도서관에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럴 때는 일을 나누는 게 해결 방법이다. 그러나 그 일을 나누고 책을 골라주고 읽어주는데 사서의 경험을

전달할 때에도 '아이들에 대한 믿음'도 같이 전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서 대신 어른들에게 책을 읽어주도록 맡기는 일도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통해 어른들도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어린이도서관에서 만나는 어린이 책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추천도서 목록은 서로 크기를 다르게 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린이, 또 하나는 학부모와 학교, 다른 하나는 출판사에 보내어진다. 아주 소박하게 만든다.

\* '하얀 까마귀' (많은 까마귀 중에서 아주 드문)……볼로냐국제도서전 등에서 본 프랑스 어린이사서들이 펴 낸 목록은 출판인들에게 보내지는 목록인 것 같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잘 골라지지 않은 책이 많은 도서관을 한 마디로 '빈 조개껍질'이라고 할 수 있다. 멀쩡한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주워들지만 열면 비어있는 조개껍질에 속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 어린이들이 어떤 책을 선택하는가는 어린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책을 잘 골라 서가를 채우는 일은 어린이도서관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고 모든 일의 중심이어야 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왜 프랑스 어린이 책이 예술적이며, 출판 분야에서 늘 새로운 시도와 투자를 아끼지 않는지 왜 어린이문화가 상업주의로부터 지켜져 예술과 문화, 그리고 자유로움 속에 남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모델을 만들어가는 순천 기적의도서관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것도 '장서 구성'

이다. 나쁜 책은 가려내자는 취지로 기부를 받더라도 목록을 제시, 그 목록 안에서 받고 있다. 아주 좋은 만화로 600여권 골랐지만 서가에 꺼내놓지는 않았다. 우리 아이들 둘레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학교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만나는 환경이 될 때까지 당분간 만화는 내놓지 않을 생각이다.

순천 기적의도서관 장서는 3만 7천여 권이지만 2005년 한 해 동안 관외대출이 217,364권이다. 하루 평균 652권을 빌려갔다. 빌려갈 수 있는 책이 3만여 권이어서 7번 이상 회전된 셈이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독서공간에 좋은 책을 들여놓으려는 노력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겠다. 디지털 자료실에도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았고 잘 만들어진 그림책영상동화만 볼 수 있다. 되도록 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다. 빠트 여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다. 수서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자원활동가들의 교육 부분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어린이 책에 대한 이해'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던가. 어린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를 알게 되고 그 책을 어떻게 건네줄까, 하는 고민이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계속 이어지는 어린이도서관의 사서들이 가장 고민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

<책을 통한 기쁨 Lav joie par les livres> 어린이도서관과 즈느비에브 빠트 여사는?



<즈느비에브 빠트 여사>



<책을 통한 기쁨 어린이도서관의 자료집을 들고 있는 이호백 선생>

지난 1965년 프랑스의 한 개인 메세나에 의해 기증되어 파리 근교에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어진 <책을 통한 기쁨> 어린이 도서관이 작년에 40주년을 맞았다. 이 도서관을 이끈 사서 즈느비에브 빠트 여사는 이와 같은 훌륭한 어린이도서관 모델을 사회 전반의 환영 속에 실천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이 도서관을 모델로 하여 프랑스 전역에 3천여 개의 어린이도서관과 열람실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런 도서관과 함

께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모든 어린이 책을 보관하고 관련 자료를 운영하는 자료센터, 즈느비에브 빠트는 부설 기관으로 국립 어린이 책 자료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우수한 어린이 책 사서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동시에 발전시켜왔다. 지금도 지역별 사서 모임에서 이들이 만들고 있는 우수 도서목록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목록으로 프랑스 어린이 책 분야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곰 세 마리 Les trois ours>는?



<엘리자베스 로르틱>

프랑스 어린이 책 분야의 가장 혁신적인 그림책들의 소재가 되어 온 전래동화의 제작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특별한 이름의 집단은 즈느비에브와 활동을 같이 해 온 바로 다음 세대의 사서들이 만든 아주 유별난 조직이다. 이들은 예술적으로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이해가 적은 어린이 책과 작가들의 작품을 소통시키는 일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벌 더 나아가 직접 출판과 배포를 담당하여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서들의 문화, 예술 교육을 천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곳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로르틱은 국제적인 사서 문학 활동으로 명성이 높은 사서이며 출판인이자 문화기획자이다. 브르너 무나리, 고마가타, 연조 마리, 타나 호방, 사라 문 등 이미 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픽 아티스트와 사진작가 이외에도 음악과 무용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 노는 예술놀이' 들을 일반에게 소개하고 있다.